

1. 사료산업 및 축산업 동향

2006년 2/4분기 이후 사료용 곡물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사료업계 및 축산업계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세계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지난 2년여 동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세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해상운임 및 환율의 상승까지 겹치면서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은 물론 기타 부원료 가격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최근 미국산 옥수수의 국제가격은 국내항도착도 가격기준(C&F)으로 435.0\$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가격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타 부원료의 경우도 옥수수 보다 더욱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며 일부 부원료의 경우는 물량부족 현상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미국산 옥수수 가격상승시 견제해왔던 중국산 옥수수 및 소맥의 경우는 자국의 식량부족과 사료수요 증가, 에탄올 산업의 활황 등의 사유로 2007년 이후 수입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다. 또한 식물성단백질원료의 대표주자인 대두박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유통물량이 적은 기타 식물성단백질원료인 채종박, 야자박, 팜박의 가격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사료용뿐만 아니라 식용 및 가공용 농산물(옥수수, 소맥, 대두 등)의 가격급등으로 인해



홍순찬 부장
(사)한국사료협회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산 사료원료 가격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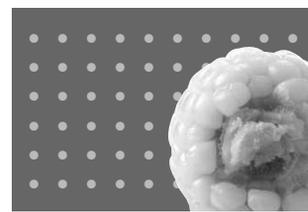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곡물수입국들의 입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 같은 고공가 추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국제곡물시장의 수급구조의 변화로 인해 장기

화되어 간다는 점이다. 과거 국제 농산물가격의 오르내림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주요 농산물 생산·수출국의 한발이나 엘리뇨 등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생산(수출)량 감소현상이 발생하여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1년 또는 2년의 회복기를 거치면서 예년의 가격으로 복귀하는 반복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 그러나 현재 사료곡물가격의 상승원인은 과거의 것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2. 사료곡물 수급동향

2008년 6월 미국 농무성의 곡물보고서에 따르면 금년도 세계 사료곡물 총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0.8% 감소한 10억 6,756만톤으로 전망하고, 재고율 역시 전년도의 12.3%에서 1.4%포인트 하락한 10.9%로 전망하고 있다(표 1).

곡종별 수급상황을 보면 사료곡물중 물량적인 면에서 50%이상을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료원료 가격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옥



〈표 1〉 세계곡물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 백만톤, %)

구분	생산량	총소비량		재고량	재고율	
		국내소비	수출			
세계 사료곡물	2008년 6월(A)	1,067.56	1,082.63	118.99	131.29	10.9
	2008년 5월(B)	1,070.64	1,078.37	119.33	127.23	10.6
	2007년(C)	1,075.69	1,068.87	124.54	146.36	12.3
	증감율(A/B)	-0.3	0.4	-0.3	3.2	
	증감율(A/C)	-0.8	1.3	-4.5	-10.3	
세계 옥수수	2008년 6월(A)	775.26	793.06	91.87	103.29	11.7
	2008년 5월(B)	777.56	788.21	92.31	99.03	11.2
	2007년(C)	789.81	778.88	98.56	121.09	13.8
	증감율(A/B)	-0.3	0.6	-0.5	4.3	
	증감율(A/C)	-1.8	1.8	-6.8	-14.7	
미국 옥수수	2008년 6월(A)	298.08	266.97	50.80	17.08	5.4
	2008년 5월(B)	307.99	270.78	53.34	19.37	6.0
	2007년(C)	332.09	266.97	62.23	36.39	11.1
	증감율(A/B)	-3.2	-1.4	-4.8	-11.8	
	증감율(A/C)	-10.2	0.0	-18.4	-53.1	
세계 소맥	2008년 6월(A)	662.90	645.98	118.44	132.06	17.3
	2008년 5월(B)	656.01	642.04	117.46	123.99	16.3
	2007년(C)	610.77	622.25	110.70	115.14	15.7
	증감율(A/B)	1.1	0.6	0.8	6.5	
	증감율(A/C)	8.5	3.8	7.0	14.7	
세계 대두	2008년 6월(A)	240.67	239.44	76.29	50.41	16.0
	2007년(B)	218.80	233.52	73.75	49.26	16.0
	증감율(A/B)	10.0	2.5	3.4	2.3	

※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e Supply and Demand Estimates"

수수의 경우 세계 총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1.8% 감소한 7억 7,526만톤의 생산량을 전망함에 따라 재고율도 전년도의 13.8%보다 2.1%포인트 하락한 11.7%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세계 옥수수 무역량의 65% 수준을 점하고 있는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억 9,808만톤으로 전년도의 3억 3,209만톤에 비해 무려 10.2%나 감소함으로써 재고율도 지난해의 11.1%보다 4.3%포인트나 하락한 5.4%로 전망되어 사상 최악의 재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산 옥수수의 생산량 및 재고율의 하락이 현재의 곡물가격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고 향후에도 상당기간 가격강세를 예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옥수수와는 달리 주로 식용을 목적으로 재배되지만 엘리노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사료용으로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소맥의 2008년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8.5% 증가한 6억 6,290만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소맥의 생산량 증가는

호주와 우크라이나 등 전통적인 소맥생산국들이 지난해 극심한 한발 등으로 인해 작황이 극히 부진했던 것이 평년작황으로 회복되었고, 타 농산물에 비해 소맥의 국제가격 상승폭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주요 농산물 생산국들에 서 소맥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 대두의 세계 총생산량이 2억 4,067만톤으로 전년대비 10.0%증가하고 미국의 생산량도 8,450만톤으로 전년대비 20.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재고율은 세계가 16.0%로 전년도 같은 시기와 변동이 없고 미국의 재고율은 5.7%로 지난해의 4.1%보다 1.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적으로 대두생산량 증가에 비해 재고율의 변동이 없거나 생산증가율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국내소비량 및 수출량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세계적으로 소맥 및 대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사료용 곡물가격의 지속적 상승전망

작금의 세계적인 농산물 가격상승은 과거의 그것에 비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며, 비록 지금과 같은 가격의 고공행진이 안정된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가격으로의 회귀는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향후 수급문제로 인해 국제가격의 장기간 강

세를 전망하는 가장 큰 요인은 옥수수 등을 이용한 에탄올 산업의 열풍에 기인하고 있다. 세계 옥수수 수출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가격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40% 정도가 에탄올제조용으로 사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9년 이후 8년간 에탄올용 옥수수 사용량이 연 평균 40% 이상씩 증가해 왔으며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04년도 옥수수 전체사용량의 15.0%정도인 3,300만 톤이 에탄올 제조용으로 사용되었으나 2008년에는 3배가 넘는 1억톤 이상이 에탄올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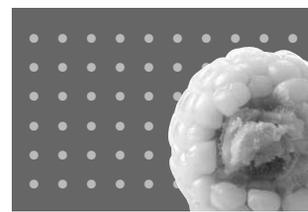
<표 2> 대형마트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톤)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생산량	299.9	282.3	267.6	332.1	298.1
총수요량(A)	224.7	231.7	230.8	267.0	267.0
에탄올용(B)	33.6	40.7	54.6	76.2	101.6
B/A(%)	15.0	17.6	23.4	28.5	38.1

※ 자료 : 2007년 식품 유통 연감

다음은 소맥 등 주요 농산물 생산·수출국들의 상황변화가 작용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주요 식량인 소맥 수급에 있어 주요 수출국인 호주의 기록적 가뭄으로 인해 수출중단은 물론 수입국으로 전환되었고, 북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소맥 주산지 역시 폭염으로 밀 생산이 급감함에 따라 전체적인 수급불안정으로 인간의 식량인 곡물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호주의 가뭄은 연간 30만톤 내외를 수입하



던 루핀시드의 수입중단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사료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옥수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미국산이 주도하고 있는 옥수수 국제가격의 견제기능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다음은 사료곡물 생산 및 수급동향 등과 같이 공식적인 자료나 정보가 없으나 에탄올산업의 활황으로 인한 농산물의 수급의 문제 못지않게 농산물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투기자본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즉, 스테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 제조업, 금융 및 서비스산업에 치우쳐 있던 세계적인 헤지펀드가 대거 농산물 시장으로 유입됨으로서 과거 수급상황에 의해 비교적 소폭의 등락을 보이던 가격변화가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특정국가 또는 특정 곡물메이저들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투기자본 유입은 가격등락의 가변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원료수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다른 중요한 가격변동요인은 해상운임의 상승이다. 최근의 수입 사료원료 가격구조를 짧게 표현하면 사료원료의 내재적 가격은 강보합, 해상운임은 급상승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원료 가격상승의 주도적 원인이 원료가격(물건대금, FOB) 상승보다는 물류비(해상운임, Freight) 상승이 더욱

〈표 3〉 해상운임 동향

구분		2007.	2008.	2008.	증 감 율(%)	
		12(A)	3(B)	6(C)	C / A	C / B
해상운임 (\$/톤)	PNW	78.0	66.8	80.0	2.6	19.8
	GULF	109.8	110.8	135.0	23.0	21.8

〈표 4〉 주요원료 수입가격 동향

(단위 : C&F US\$/톤)

구분	2006년 평균	2007년 평균	2008. 4월	최근 구매가격
옥수수	143.6	211.1	299.7	339.4
대두박	229.5	263.8	440.2	451.2
소맥피	125.3	165.9	215.3	259.0
채종박	143.3	164.5	290.5	315.0
야자박	98.6	164.2	183.3	217.0
타피오카	98.7	132.9	208.9	232.0

※ 자료 : 2006~2008. 4월은 관세청 통관가격 기준이며, 최근 구매가격은 구매계약 가격기준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표 3).

이상에서와 같은 국제 농산물 시장의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곡물가격의 상승세가 단 시간에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내 농협을 비롯한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해상운임 및 곡물가격의 강세를 전망하여 주요원료인 옥수수 및 대두박을 이미 금년 12월분까지 미리 구매해 놓은 상황에 있다(표 4). 우리나라 배합사료산업의 경우 실질적인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95%에 이르고 있고, 제조비용 중 원재료비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 4에서와 보는 바와 같은 사료원료 수입가격은 향후 국내 유통사료 가격의 추가적인 인상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다. 